

社說

과태료 부과한다고 불법주정차 근절되나

해마다 광주지역에서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민원해결 방법은 고과 과태료 부과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주정차 불벌’ 신고는 상담 민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광주 시내 각 구청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서구의 경우 2019년 3천760건, 2020년 1만3천444건, 2021년 2만9천3천78건으로 3년 사이에 민원이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 동구는 2019년 2천389건에서 2년 후인 2021년에는 9천328건이 접수됐다. 약 4배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인 남구도 2019년 6천862건에서 2021년 9천479건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실태는 이러한데도 대책은 미봉책이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 뿐이다. 언제든 민원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각 자치구는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서구는 동천동과 금호동 일대에 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까지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계획된 동천동 공영주차장은 얼마전 부지 내 건물 철거가 끝나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 돌입했다. 4개 월간의 용역이 끝나고, 이르면 올해 말게부터나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호동에 신설될 공영주차장(주차타워)도 최근 부지 선정을 마쳐 매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 탓에 관계자는 매입 협의는 내년 하반기께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주차장 신설과 실질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당장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를 융통성 있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정차 훌쩍제’ 등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단속이 최고의 대책은 결코 아니다.

‘광주 내신부정’ 교육계 자성 계기 삼아야

초유의 내신부정 비리가 광주에서 또 터졌다. 4년 전 시험지가 유출돼 관계자들이 구속된 바로 그 사립고등학교다.

교육당국은 범죄행위를 방불케 하는 고교생의 범죄행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해당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도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했지만, 해당 학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더욱 놀라움 따름이다. 그만큼 학교 시험 보안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공부 삼매경에 빠진 일반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이 생명인 내신 관리에서 부정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부랴부랴 시험 출제 교사 노트북을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한다고 한다. 교무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사설 경비 업체 방법 설치 문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장학사로 구성된 학생평가 전담반

을 가동해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시험 출제·인쇄·시행·채점 등 단계별 보안관리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지(상피제 적용), 교직원의 자녀, 친지 등이 학교에 재학할 경우 교사들의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번 대응이 사후약방문식 뺄지 못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4년 전 내신 비리 당시에도 관계자 2명이 구속됐지만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다.

결국 시교육청과 해당학교의 안일한 인식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점선 광주시교육감이 다양성을 포용한 혁신교육을 표방하면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다양성 존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불수 있듯이 공정과 인성 교육을 최우선 시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신 비리로 인한 지역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했다. 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면 결코 안 된다. 광주교육이 한결탈태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론



김춘식  
등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과 한국의 교육문화

최근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교수(미국 프린스턴대)가 필즈상을 받았다. 허교수가 ‘수학 분야의 노벨상’ 격인 이 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수학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 과학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실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필즈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학교 교육현장에는 소위 수학포기자(수포자) 증가 문제가 여전히 시급한 해결 과제이고, 게다가 중학교 2학년의 ‘수학 흥미도가 세계 최하위권(39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입위주의 암기식 반복학습을 꼽고 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흥미도 저하가 비단 수학 과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이들 요소들을 모두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호기심이 발휘되고, 나아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통해 스마트한 인재로 성장할 계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비판적 사고는 우선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상황에 대한 깊은 관찰과 사유, 자신의 이해를 넓히고 지적 성장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또 한 비판적 사고력은 주어진 정보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지식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나 변화된 상황에 대한 ‘흥미’와 그것에 대하여 깊이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자극된 호기심은 주어진 사물이나 자연세계, 그리고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적으로 관찰하게 하는 동기를 주고, 또한 몰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책을 읽는 데에 걸린 시간만큼 생각(사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정독(精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의 다음 단계인 관계

에 대한 사유과정, 즉 분석적 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의 성장을 돕고, 모든 지적 활동의 원동력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과학자 단체인 미국 물리학회에 한국인 최초의 회장인 이태희가 임명됐다. 이태희 교수는 “한국 특유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문화, 그리고 뒷사람을 공격해야 하는 서열의식이나 문화가 학생들의 창의력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의력의 가장 큰 장애는 관습, 관례, 고정관념에 기반한 사고(思考)의 경직성이다.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내는 것은 어른들에 비해 고정관념이 적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과 서열화된 문화에서는 결코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생각이 탄생할 수 없다.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키워주고, 비판적 사고를 통한 창의융합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기고



정기연  
前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관공서 실외 환경의 공원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성장한다. 환경에는 정적환경과 동적 환경이 있는데 동적 환경이 관심을 끌게 한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에는 학교, 관공서인 시·도청 구청 군청 면사무소가 있는데 이들 관공서가 실외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공서가 지방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며 쉼터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잘된 조선대학교는 학교의 실외 환경이 공원화됐으며 장미 축제로 주민들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초등학교도 학교 공원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사철 피는 학교 실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적인 실외 환경조성으로 물레방아가 돌고 있어 에너지 변환에 대한 교육자료가 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광주 수창초교(교장 배창호)의 물레

방아는 연못의 수중 생물원과 어울려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

광주 북구청은 실외공원화 사업이 잘된 구청이며 구청 앞 공한지가 규모 있게 어울려 두 체의 정자가 청사 양쪽에 있으며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고 있어 동적 환경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화단조성도 잘 꾸며서 봄에는 봄꽃전시회, 가을에는 국화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사철 꽃피고 아름다운 공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관공서에 실외공간이 있어도 민선 단계장의 관심이 없으면 풀밭으로 전락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으며, 관공서가 공원화된 관공서와 대조적이다. 한 일이 열 일이라고 관공서의 실외환경이 공원화된 것만 보고도 지방행정이 알차고 실속있게 잘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으며 관공서 공원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관공서와 가까워지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관공서 실외환경조성은 지역 특성과 관공서 위치에 따른 공원화 조성 설계도가 필요하며 화단 조성, 구조물 설치, 정적환경으로 사철 꽃피는 환경조성 설계, 동적인 환경으로서 연못과 물레방아 설치에 대한

구상과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창의력을 발휘해 조성해야 한다.

동적 실외 환경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물레방아인데 지역에 따라 흐르는 자연수를 이용해 물레방아가 돌게 하고 에너지 변환을 하는 시설도 할 수 있으며 연못을 만들고 연못의 물을 펌프질해 물레방아가 돌게 할 수 있으며 태양광 전기 설치로 전기는 충당 할 수 있다.

물레방아는 움직이는 환경조성에 이용하고 있는데 다방이나 음식점의 환경조성과 관공서나 학교의 실외 환경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문화전당 앞 민속촌 음식점에도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움직이는 환경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환경은 정적인 환경과 동적인 환경이 있는데 동적인 환경은 살아 움직이는 환경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은 전기에너지 이용시대인데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여 변환되는가에 관심을 두게 하며 그 지역 주민과 학생과 고객 이 동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이 창의적이고 정서적이다. 그러므로 환경 조성은 창의력을 발휘해 동적인 환경으로 바꿔보면 한다.

필자는 고향 무안군 문당면 산소진 입로 가에 고지대에서 흐르는 물을 저

지대로 350m까지 파이프로 유입하여 저지대로 흐르게 했으며 거기에서 나온 물로 물레방아를 돌게 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환경에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위치에너지 변환 이용의 착상(着想)에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이 없는 곳에서 물레방아를 설치하려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 거기에 발생한 전기에너지로 수중 모터를 돌려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물레방아가 돌게 하면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움직이는 환경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필자는 물레방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공장이 담양군 무정면 면사무소 부근에 있음을 알고 답사했다. 하나의 물레방아를 만드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장인이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만든 물레방아를 크기 용도에 따라 정해 사서 설치하면 된다. 에너지 변환의 원리를 알고 학교를 비롯한 관공서의 주변 환경을 움직이는 동적인 환경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행자 발길 사고, 피할 수 없다면 예방하자

인도없는 발길 도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차량 통행량이 적어 과속 차량이 많고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사면에 인지하기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다. 또한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큰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운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더라도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갑자기 직면하게 된 도로변 보행자 출현은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로등 및 조명장치

가 작동되지 않는 곳을 수리하고, 야간에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다니는 장소를 파악하여 그 장소에 집중적으로 조명장치를 설치한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예방법은 보행자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보행자는 되도록 안전한 길로 보행을 하고 갖가지 없는 도로를 야간에 걸어갈 때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야광조끼나 야광지팡

이 등을 활용하여 야간 운전자에게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야간 보행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주형 LED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개발 및 추진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행자 역시 야간 보행 안전수칙을 지키며 생활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배재현·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차도 주행 전동휠체어 위험천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보행 보조장치는 이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알아야할 점이 있다. 바로 일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도(인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빠른 대처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데다 일부 구형 전동휠체어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조명등, 전조등 등 야간주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턱 높이가 완만하지 않거나 불라드가 박혀 있어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 고약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 대해 야광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자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내보외사)

관공서 실외 환경의 공원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가족의 재탄생’...친족 아닌 가구원 100만명 돌파, 역대 최대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비친족 가구 수도 1년 만에 10%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천660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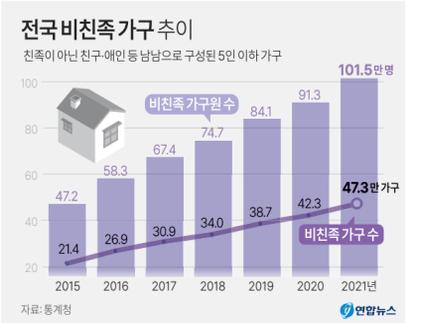
비친족 가구는 시설 등에 집안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16년(26만9천444가구)까지만 해도 20만대에 그쳤던 비친족 가구는 2017년(30만8천659가구) 처음으로 30만 가구를 넘어선 이후 2020년(42만3천459가구)에는 40만 가구를 돌파했고, 지난해 47만 가구까지 늘었다.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5천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58만3천438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가구원 수가 74.0% 급증한 것이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비친족 가구의 78.5%(37만1천647가구)는 읍이나 면이 아닌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2만6천373가구)에 비친족 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9만9천555가구)이 뒤를 이었다. 비친족 가구의 절반가량(47.7%)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생물학적) 가족과 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건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국교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시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